



정통 교회 음악을 고집하는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김명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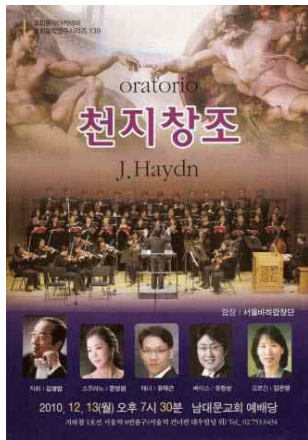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오스트리아 빈 음악원 수학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추계예술대 교수 역임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역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역임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 역임
 새문안음악교육원 원장 역임
 현)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현)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현) 서울바하합창단 지휘자
 현) 남대문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

서울바하합창단은 교회 음악 지도자들과 애호가들이 오라토리오, 칸타타, 미사, 모테트 등 교회 음악 작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연주하고자 1990년 10월 현 지휘자인 김명엽 교수에 의해 창단되었다.

창단 첫 해에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비롯하여 수 많은 바하의 '교회칸타타', 헨델의 '메시아',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모차르트의 '대관미사', '크레도 미사',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성 바울', '엘리아' 등 대작 오라토리오와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구노의 '장엄미사', 로씨니의 '스타뵈 마테르', 스테이너의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드보이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등을 연주하였다. 코리아나심포니 정기연주회에 수차례 협연한 것을 비롯하여 SBS 주최 '한일 합창연주회', CBS 기독교 방송 개국기념 '부활절음악회', 문화부 주최 '종교음악제'와 새사람선교회 주최 '사랑과 영혼' 음악회, 베토벤의 '코랄 환상곡'과 쌍용그룹 송년음악회 '베토벤 제9교향곡'연주에도 출연하였다.

한국인 교회 음악작가가 시리즈 연주로 박재훈, 구두회, 김두완, 이영조, 문성모, 주성희, 한태근, 권덕원, 이기경 등의 작품 발표회를 열었고, 교회음악아카데미 주최의 모범예배인 '루터교 의식에 의한 예배', '국악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 너 있었는가' 등의 찬송으로 드리는 음악예배와 '부활의 메시지', '세계성만찬주일 모범예배'와 연세대 교목실 주최 '재에서 불꽃으로' 모범예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의 찬송가 음반 취입을 비롯하여 찬송가 전집인 '생활 속의 찬양', 구노의 '장엄미사', '부활의 메시지' 등 그 동안 취입한 음반도 20여 장에 이른다.

합창단은 수시로 작은 교회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순회찬양을 하고 있으며, 매년 12월24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져왔다. 연 2회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교회음악아카데미 주최 교회음악세미나에 참가하여 교회 음악의 보급과 사회봉사는 물론 나아가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통 교회 음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연주

- 1990. 12. 바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연주
- ⋮
- 2006. 1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루크추크 연주
- 2007. 4. 페르글레지/ '스타벳마터' 연주
- 5. 포레/ '레퀴엠' 연주
- 2008. 4. 헨델/ '메시아' 1부, 2부 중간 전곡연주
- 2009. 7. 몽골 울란바토르 연주
- 8. 김두원 추모음악회
- 2010. 3. 드보야/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 6. 멘델스존/ '사도바울' 제2부 연주
- 9. 김희보 작시 성가연주회
- 12.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소규모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음악의 진수를 소개하는 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창단을 창단한 김명엽 지휘자는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 연주되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사랑받고 불렸던 고전적인 오라토리오와 합창곡들을 발전·계승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아가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단장으로는 박래창 장로(소망교회, 한국장로신문사장,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역임, (주)보창상사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부단장으로는 김승욱(중앙대 교수,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회장)교수가 수고하고 있다.

서울바하합창단은 해외 연주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에는 일본 동경, 동송산으로 연주여행을 다녀왔으며, 2006년 10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이루크추크, 그리고 2009년 7월 2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초청으로 필하모니 공연장 등에서 해외 연주를 했다.

합창단의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8시부터 9시30분까지 용산구 동부 이촌동에 위치한 한강교회에서 하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단원은 60명 정도인데 이들 중 약 70% 정도가 음악대학 졸업자이다. 서울바하합창단을 후원하거나 동참하기를 원하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achchoir> 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성악전공자의 경우 수시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들에게는 1년에 한번 씩 있는 단원모집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서울바하합창단은 2011년 1월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 교회음악분과로 가입했습니다. 정통 교회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